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7월 7일(금)
--(음력 5월 20일)--
Пятница
7 июля 2023 г.
№ 26 (1204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8일은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을 맞아 축하를 전합니다! 좋은 이 가정의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러시아에서 가족은 항상 정신적, 생명을 담은 힘의 무한한 원천이자 기둥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뒷사람들을 존중하며, 아랫사람들을 배려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강할수록 국가는 강해집니다. 사할린 주에는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출산 지원금, 주택 지원 및 다양한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화목하게 살아오며 자녀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고, 입양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시는 섬의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그들을 본받아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즐거운 기념일 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과 사랑,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우리 트루트네브, 사할린 및 쿠릴 열도 방문

러시아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가 지난 3-4일 이틀간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지난 3일(월) 부총리는 '우윤' 주택 단지의 건설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현장을 돌아본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러시아 동방경제개발부에 사할린주 정부와 협력하여 이 지역의 건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은 저렴해야 합니다. 섬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항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저렴하게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 달 후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극동 지역에는 세금 혜택을 포함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생산을 위한 기업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할린의 주택



이 아름답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루트네브 총리가 말했다.

또한 코르사코브 항구의 개발 계획과 선박 인양 작업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회의에서 코르사코브 항구의 수력 기술 시설 재건을 위한 설계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작업은 연방 전문가 심사가 완료된 후 2024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할린 방문차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사할린 국립 대학교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 대표단,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샤희츠크에서 작업 진행 상황 점검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 주정부 총재와 예벤 솔른체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총재가 도네츠크공화국 샤희츠크시의 사회시설을 시찰했다. 1년 전, 전국 각지에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도시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샤희츠크 지역을 사할린 주가 맡게 되었다.

단기간에 샤희츠크 공공 시설의 심각한 문제가 섬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해결되었다.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제공하는 수리 팀이 구성되었고, 양측 인사들이 방문시에 샤희츠크의 교육 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의 보수 작업을 점검했다. 현재 사할린 전문가들이 샤희츠크에 스포츠 시설과 놀이터를 짓고 겨울을 대비해 도시를 정비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 또한 사할린 지역의 지원으로 샤희츠크의 700 여명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변 야영소에서 휴식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사할린 에너지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 저지

7월 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막고 우크라이나 군 지지자를 구금했다.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 지지자(러시아 시민)가 사할린에서 에너지 시설과 군 징집 사무소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준비하던 중 구금되었다... 1980년생의 러시아 시민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홍보 센터에서 전했다.

연방 보안국 요원들이 용의자가 사는 집을 수색하고 사제 폭발물 제조용 부품과 제조 방법 설명서, 대량의 극단주의 콘텐츠, 우크라이나 테러 조직원과 주고받은 서신서 등을 압수했다.

이 남성은 반역죄 및 테러 행위 준비 혐의로 기소되었다.

"불법 체류자 2023"작전 사할린에서 실시

사할린 경찰은 "불법 체류자 2023" 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93건의 이민법 위반이 기록되었고, 법원은 32명의 외국인에게 러시아에서 추방 판결을 내렸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밝혔다.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찰은 이주민 거주지 69곳, 건설 현장 10곳, 소매점 3곳, 세차장 6곳을 점검했다. 또한 114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검사하고 842대의 차량을 검사했으며 320명의 외국인을 내무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7월 8일은 가정, 사랑 및 충실의 날

장덕수 · 공명기 의사 부부: "사랑, 따뜻함, 존경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정, 사랑 및 충실의 날을 기념한다. 독자들에게 좋은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 여러 지인들에게 추천을 부탁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두 분이 장덕수·공명기 의사 부부가 정말 좋은 취재 대상이라고 했다.

사실 공명기(러시아 이름 마리나 겐나지예브나, 1971년생, 사흐초르스크 시 출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 신경과 의사와는 올 봄 한 행사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의 친언니 공명순 심장 전문의를 3년전 우리 신문에 소개한 적도 있어서 인터뷰 요청하기가 보다 수월했다.

장덕수(러시아 이름 알렉세이 블라디미로비치, 1970년생, 마카로브 구역 노외에 마을 출생)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 마취 및 소생술과 과장으로 13년째 일을 하고 있다.

알렉세이와 마리나의 인연은 블라고웨센스크 의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다.

"제가 10-11살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큰 수술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은근히 제가 앞으로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라고 장덕수 과장이 말하였다.

공명기 씨도 그랬다. 친척, 친지, 주위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병의 원

인을 알고 싶었고 병든 가족을 늘 돕고 싶었다. 더군다나 2살 위 하나뿐인 언니가 의대에 입학하여 그 마음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언니를 따라 블라고웨센스크 의대에 입학했는데, 그 곳은 공 마리나와 장 알렉세이에게는 운명적인 곳이 되었다. 2학년때 사귀어 4학년이 되자 1992년 4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해 여름에는 첫 아들 콘스탄틴을 낳았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1개월 된 갓난아기때부터 키우셨거든요. 제가 휴학을 하지 않고 대학 공부를 잘 마치기 위해 일찍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첫째가 할머니와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유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국에 영주귀국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연락도 자주 드리고 농담, 우스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라고 공 마리나 선생이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부부는 같은 병원, 안쿠지노브명칭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에서 자기 전공대로 일하게 되었다. 올해로 각자의 경력은 28년이다. 두분 다 전문분야로 동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전문의들이다. 부부 모두 고급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장덕수 과장은 의료 공로로 러시아 보건부의 '우수한 의료진'



이란 칭호와 배지를 받았고 공명기 전문의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그 외 두 의사는 수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장-공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알렉세이 과장은 "자녀와 부모들이 우리 인생의 모두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말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곧 30세가 되는 맏아들 역시 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의 의료센터 방사선 치료과 의사다. 둘째 아들 세르게이는 엔지니어를 전공하여 극동연방 대학교에 재학중이다. 첫째는 휴가나 주말에 사할린 집에 와 보내는 것

을 좋아한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와 아이들은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하는데 매일 이야기하면서도 할 말은 여전히 많다.

한국에 계시는 마리나의 부모와 알렉세이의 어머니에게도 자주 화상 전화를 하려고 한다. 이걸 당연한 일이다. 때로는 마리나 선생보다 알렉세이 선생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

동료들은 장 알렉세이 과장을 아주 엄격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의사로 알고 있지만 가족에게는 한없이 배려심이 많은 아버지이자 아들, 그리고 남편이다.

"병원에서 정말 엄격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익살도 잘 떨고 집안 일도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요"라고 아내 마리나가 말한다.

5년전부터 마리나는 미술에 푹 빠졌다. 전문 화가들에게서 미술을 배우고 주말마다 수업을 다닌다. 결과는 수많은 그림이다. 자유 주제의 그림은 아직이지만 따라 그리기는 곧잘 한다. 주로 유화를 그리는데 실력이 계속 늘고 있다. 시간이 가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다. 알렉세이도 아내의 취미를 적극 응원한다.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병원에서, 그리고 시립 병원

이후 사립병원에서 환자 치료로 많이 힘든데 그림그리기는 기분 전환, 스트레스 풀기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곤 기자에게 아내의 또 하나의 재주를 밝혔다. 마리나가 뜨개질을 엄청 잘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온 가족이 마리나가 뜨개한 작품 - 스웨터, 조끼, 모자, 장갑 등을 하고 다닌 적도 있었다.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 배려심이 많이 느껴졌다.

"한편으론 같은 병원에서 일해서, 의사로서 치료 과정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다른 한 편으론 우리 남편이 중환자만 치료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소생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는지요! 특히 모든 것(의료진, 입원속, 의약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느라, 환자 입원 수속까지 챙겨야 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그땐 그이가 병원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잊지 못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뭔가 더 챙겨주고 싶어요. 필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라고 남편이 인터뷰 현장을 떠난 이후 마리나 선생이 고백했다.

현재 집에서 둘만 지내지만 마리는 음식을 많이 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모스크바 대학생들, 사할린의 자연 단지 개발에 참여

러시아 공과대학교(모스크바) 자원봉사자 16명은 관광 자연 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사할린 보호 자연 연구하기 위해 사할린 섬에 왔다.

이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는 곳 - 찌하야 만에 가기 위해 비행기로 8시간, 기차로 3시간, 걸어서 4km를 이동해야 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작업 후 자유 시간에는 오호츠크해에서 수영을 하고 찌하야 꽃까지 산책하며 사할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대학의 공식 브론타테 페이지는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센터 및 정자를 짓고, 자원봉사자 숙소와 목욕탕을 개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자연 공원 탐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름 내내 섬에 머물 예정이다.

Студенты московского вуза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 обустроить природный комплекс

16 добровольцев Российск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Москве отправились в экспедицию н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устройств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ирод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заповед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природой.

Чтобы добраться до бухты Тихой, где они убирают мусор и косят траву, им потребов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8 часов на самолете, три часа на поезде и четыре километра пешк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уденты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выполнению волонтерской работы.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которое появится после работ, можно будет потратить на купание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прогулку до мыса Тихий, рассказы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ый паблик университета ВКонтакте сообщает, что студентам-добровольцам предстоит помогать строить визит-центр и беседки, ремонтировать хостел для волонтеров и бан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ейдах по природному парку. Волонтеры пробудут на острове почти все лето.

사할린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유즈노사할린스크 무료투어

신문화관광센터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저녁 1시간 30분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무료 투어가 진행된다. 투어는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진행된다.

투어코스는 블라디미롭카(도시의 역사적 시작점), 주요 광장인 레닌, 포베다(승리), 슬라바(영예), 도시의 주요 거리, 주 향토 박물관(박물관 투어는 제외) 등으로, 도시의 주요 명소를 둘러본다.

"유즈노사할린스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으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토록 특이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이렇게 절묘하게 융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며 기꺼이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라며 문화 관광 센터는 투어의 잠재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투어에 참여하려면 <https://mauktc.timepad.ru/event/1497067/> 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8 4242 210-310으로 문의할 수 있다. 평일 10:00~17:00에 통화가 가능하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глашают на экскурсию по столице области

Как сообщил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ая полуторачасов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вечернему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Передвиж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комфортабельном автобусе.

Экскурсия проходит по таким основны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ым местам города, как Владимировка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чало города), основные площади - Ленина, Победы, Славы, основные улицы города,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без экскурсии по музею).

- С чего начинается становление города, как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вехи переж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какие события сделали его таким необычным городом? Почему именно здесь так лаконично переключаются культуры Запада и Востока? Мы знаем ответы на эти вопросы и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делимся знаниями с вами! - интригуют клиентов в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Для участия в экскурс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писаться по ссылке <https://mauktc.timepad.ru/event/1497067/>. Все подробност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10-310.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будние дни с 10:00 до 17:00.

45명의 승객 태운 탐험선 "프로페서 흐로모브"호, 사할린에서 출항

탐험선 "프로페서 흐로모브"호를 타고 사할린에서 45명의 승객이 출항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에서 전했다.

업그레이드된 선박은 2023년 7월 2일 사할린 코르사코브 항을 출항하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항에서 항해를 완료할 예정이다.

탐험하는 동안 관광객들은 쿠릴 군도 전체를 따라 이동하며 주립 자연 보호 구역 "말리에 쿠릴리"의 해역에 있는 세상의 끝 곳에 내린다.

이 선박은 열흘 동안 1,200해리를 항해할 예정이다.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항구에서 7월 12일에 승객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선박은 사할린으로 돌아가는 항해를 시작한다.

45 пассажиров отправились с Сахалина в круиз на экспедиционном судне «Профессор Хромов»

В круиз на экспедиционном судне «Профессор Хромов» с Сахалина отправились 45 пассажи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Минприроды РФ.

(8면에 계속)

유리 트루트네브, 사할린 및 쿠릴 열도 방문

(1면의 계속)

또한 7월 3일 통합 극동 항공 "오로라"의 활동과 사할린 주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회의들도 열렸다. 극동연방구 지역들에서 항공 접근성은 인구의 교통 수요, 경제 발전, 영토의 연결성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공기와 인프라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사회적 교통 프로그램으로 극동 연방의 여러 지역간 항공편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전에는 추코트카의 아나디르에서 인근의 캄차트카까지 가려면 모스크바를 경유해 비행기로 이들을 이동하며 75,000루블리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이제는 직항 노선 아나디르-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가 있어 4시간

조금 넘는 비행 시간에 비용은 7,500 루블리이다.

"현재 통합 극동 항공사의 노선 네트워크는 262개 정착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노선의 수는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우리 항공사의 노선 네트워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합니다."라고 오로라 항공의 콘스탄틴 수코레브리크 대표 이사가 보고하였다.

지난 4일(화)에는,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새 여객 터미널을 시찰했다.

"아주 훌륭한 공항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 극동의 많은 지역이 공항 현대

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극동 지역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할린에도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브가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투루프섬을 방문하여 쿠릴열도에서의 특혜 기능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부총리는 또한 사할린 지역 최대 수산물 생산업체 중 하나인 쿠릴스크 어부 ("기드로스트로이" 지주회사)의 "얀키토-2" 호텔 공사장과 "야스닉" 생선 가공 단지 운영 현장을 시찰했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장마 / 천상병

내 머리칼에 젖은 비
어깨에서 허리께로 줄달음치는 비
맥없이 늘어진 손바닥에도
역수로 비가 내리지 않느냐
비여
나를 사랑해다오
저녁이라 하긴 어둠 이숙한
심야(深夜)라 하긴 무슨 빛 감도는
이 한밤의 골목 어귀를
온몸에 비를 맞으며 내가 가지 않느냐
비여
나를 용서해 다오

"한국은 장마철입니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요즘, 주룩주룩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빈대떡이 떠오르네요. 막걸리도 곁들여서. 심리학자들, 그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자들은 일찍이 이런 빗소리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그럴듯한 연구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소리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순간을 연구했던 건데요. 꽃등심 구울 때 나는 소리가 빗소리 같잖아요. 아, 벌써부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자 그럼 계속 할게요. 빈대떡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침 요리를 떠올려보는 겁니다. 달군 팬 위에 먼저 기름을 얹어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 걸쭉한 밀가루 반죽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 ASMR처럼 차르르하고 빗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듯 소리의 연관으로 우리는 빗소리를 듣게 되면 빈대떡, 꽃등심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부침가루며 오징어, 꽃등심, 삼겹살 등이 더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빈대떡만 먹자니 어쩐지 허전할 것 같고, 아무래도 막걸리 역시 곁들여야 제 맛일 테니, 막걸리 판매량 역시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한 소리를 이상하게 길게 한 건가, 아무튼.



이미 이반 파블로프(Иван Петрович Павлов)가 실험을 통해 조건반사를 설명했으니 이를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뇌는 이렇듯 '경험 의존적 가소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늘 비슷한 패턴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테니. 식료품점에 가면 늘 비슷한 음식 재료와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는 이유입니다. 장맛비가 올 때는 처음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미 감자전이며, 막걸리를 즐겼습니다. 저는 비가 내리기 전, 일기예보를 듣고 미리 막걸리를 사놓은 케이스인데요. 이런 건 말하자면 조건반사라기 보다 '예지적 반사'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지요. 지글대는 소리에 맞춰 젓가락도 춤을 추고, 막걸리 잔 역시 이에 맞춰 왈츠를 추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저는 요즘 한약을 복용하느라 식욕이 더 늘었거든요. 힘겨운 삶이었을 법도 한데, 천상병 시인은 이번 생을 소풍처럼 여겼는지요. 거센 장맛비를 두고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련합니다. 무엇보다 천상병 이라면 막걸리겠지요. 오래전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할 때 일부러 인사동의 '귀천'에 가서 차를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천상병 시인의 사모님께서 '귀천'을 운영하셨거든요. 지금도 계시려나. '피맛골' '육미'라고 불리던 막걸리 맛집들을 들락거렸던 기억이, 술을 이기지 못해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게워내던 제게, 아내가 등을 두드려주던 모습이 새삼 떠오르네요. 추억의 앨범을 펼치기에는 역시 시와 빗소리만 한 건 없는 듯."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옴스크시, 제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 시에서 해마다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개최된다. 올해 이 행사는 6월 25일 '러시아는 나의 역사다' 역사파크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 30여명이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발표했다.

"제5회 한국어 구두 발표 대회는 올해 카베엔(KVN) 형태로 개최해보았는데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팀 3개('무궁화', '연꽃', '국화' 팀)를 구성하고 참가자 나이는 8세부터 51세까지였습니다."라고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옴스크지역회 부회장이자 한국어강사 심 타치아나가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서로 질문하고, 발표하고 수수께끼를 맞히고, 한국어로 숫자도 세고 팀 소개도 하고 여러 퀴즈도 맞추었다. 그리고 한국 노래 실력도 펼쳐보고 속도 있게 잘 말하기도 하였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이다' 등 제대로 발음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의 옴스크지역회가 주최한 가운데 한국회사 대표 안대현,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이르쿠츠크주 재대한민국 총영사관, '러시아 평화 재단' 등이 지원했고, 이에 감사한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한류 열풍을 비롯해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최근 옴스크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주최측 제공)



7월 8일은 가정, 사랑 및 충실의 날

장덕수 · 공명기 의사 부부: "사랑, 따뜻함, 존경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습니다"

(2면의 계속)

손이 커서가 아니라 늘 직장에 도시락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동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남편한테는 2-3인분을 더 싸놓는다.

"저는 가족과 개인의 가치가 모든 삶이 구축이 되는 중요한 토대라고 봅니다. 사랑, 존경, 충성, 친절, 보살핌, 조화, 상호 지원이 중요한 가족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의 화목은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에 의해 촉진됩니다."라는 게 마리나 선생의 생각이다.

그는 사랑, 따뜻함, 존경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 조부모님이 한 집에 계셨고 3대가 함께 하는 집이었다. 할아버지는 사진사

였고 예술 감각이 뛰어났다. 이 감각은 마리나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심하고 재능이 있으며 하모니카 연주를 좋아하고 예술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70년대에 우리집에 현지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할머니는 사랑과 친절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한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마리나 선생이 계속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고백도 하였다.

막내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 알렉세이 선생의 부모도 존경스럽고 많은 사랑을 주고받은 분들이다. 아버지는 '마카롭스키'슈호츠에서 수석 가축전문가로 오래 일하셨고 나중에는 가족과 함께 코르사코브 차파예보 마을에 이사하여 '코르사롭스키'농장에서 농장장(디렉터)을 하였다. 어머니는 한때 조선학교 선생이었고 조선학교가 폐교되자 판매원 등 여러 일을 성실히 하였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많은 배려심이 삶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들은 좋은 과거가 있었고, 좋은 현재가 있고,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배순신 기자)

2022년 사할린 주 자연 인구 변동 조사 결과

2020년 전 러시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사할린주의 인구는 460,535명이다.

2022년의 인구 총 자연감소는 1,443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29.2% 초과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쿠릴시 지구, 유즈노쿠릴스크시 지구 등 3개 지역에서 인구 자연 증가가 관찰되었다.

2022년에는 4,950명(남아 2,486명, 여아 2,464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출생아 수는 488명 감소했다.

2022년에는 쌍둥이와 세쌍둥이 등 63건의 다태아 출산이 기록되었다(2021년에는 51건의 쌍둥이 출산이 기록되었다). 2022년 어머니가 된 인구 중 최고령은 47세, 최연소는 15세이다. 전체 출생아 중 67.4%는 결혼으로, 32.6%는 혼외 출생으로 기록되었다. 전체 출생아 수 중 11.8%는 친자 확인서를 근거로, 20.8%는 산모의 진술서를 근거로 등록되었다. 전체 출생아 수 중 첫째 아이 비율은 35.6%, 둘째 아이

35.2%, 셋째 아이 19.2%, 넷째 아이 6.6%, 다섯째 이상인 아이가 3.4%로 나타났다.

사할린 지역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6,393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었다.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3.8%에 해당한다. 전년과 비교하면 15.7% 감소한 수치이다.

2022년에는 18세 미만 아동 45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0.9%에 해당한다. 1세 미만 어린이 2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9명은 남아, 14명이 여아였다.

2022년에는 4,646쌍의 커플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2022년에는 혼인 1,000건당 542건의 이혼이 발생했으며, 1년 동안 2,519건의 이혼이 있었다. 전체 이혼 건수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51.4%,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0.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18.3%를 차지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Что для вас семья?

8 июля в России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Мы решили узнать у своих знакомых и близких, чем для них является семья.

Иван (38 ле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Это крепкий дом, это дети и внуки, это наша поддержка и опора, это самое дорогое, что у нас есть.

У нас дома есть много традиций, например: печь блины по выходным, ходить в лес, ходить в магазин, отдыхать, смотреть вместе телевизор.

Олег (46 лет, диспетчер):

Семья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умение прощать друг друга,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любовь.

Мы любим ужинать вместе по выходным всей семьей. Так как мы с родителями живем недалеко друг от друга, нам проще встретиться, каждый праздник у нас большая встреча родственников. А ещё один раз в месяц встречаюсь с отцом, чтобы вместе порыбачить и поговорить обо всем.

Арина (15 лет, школьница):

Для меня семья – это счастье, взаимопомощь, по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а, уваж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любовь и море позитивных моментов.

Я живу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Мы любим собираться вместе и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в компании друг друга. Также летом мы с семьей часто выбираемся позавтракать на природу.

Виталий (47 лет, инженер):

Работа лишь часть жизн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я не веду, и вся моя жизнь – это семья, я работаю и живу ради неё.

По выходным мы нашей дружной большой семьей стараемся собираться все вместе за ужином.

Тимофей (20 лет, студент):

Семья – это люди, с которыми ты прошел какой-то большой период своей жизни и с каждой проблемой сталкивались вместе. Я благодарен тому, что в тяжелые периоды жизни близкие люди были рядом со мной.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Татьяна Григорян, Мирсаидхон Одилов

В Омск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 уст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жегодно Ом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каждый год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 уст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этот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25 июн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г. Омск),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 В 2023 году конкурс состоялся в пятый раз.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самый разный: от 8 до 51 года. Потому что изучать другую культуру, обогащать свой багаж знаний,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К тому же полезная языковая практика. Ведь конкурсанты могут задать друг другу вопро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говорить, загадать загадку, посчитать. Прежде в среднем было 17-18 активных участников, теперь желающих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ревновались только: каждый готовил свой номер и выступал,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с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в формате КВН среди команд.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конкурс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вызва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 сообщи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тьяна Сим.

Татьяна является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Ом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ОК и препода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курсах при ООК уже более 10 лет. Благодаря старания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 был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показавших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уд жюри приветствие, визитку,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и финальную песню. Кроме того, прошли викторины и конкурсы на знание цифр, цветов, участники проговорили корейские скороговорки.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спели такж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сню «Улыбка» из советского мультфильма «Крошка Енот».

Участники творч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от спонсоров. Таковыми выступил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 господин Ан Дэ Хён,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Иркутск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мира»,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мским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ООК)



Как поступить в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тратегия, стоимость, гранты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Тен, выпускник престижного University of Seoul и сооснователь онлайн-школы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Korean Simple. Он прожил в Южной Корее 10 лет, закончил там старшую школу и получил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интересует многих. Как выбрать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 множестве вариантов? Что написать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эссе? Какие документы нужно подготовить? Какая сумма должна быть на счету абитуриента?

Об этом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рассказал на своем семинаре Владимир Тен, сооснователь онлайн-школы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Korean Simple.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олодежного центра Shinsedae и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ашкенте.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ебята из Korean Simple запустили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помощь в поступлении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Дочернюю компанию назвали KSimple Study.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февраль 2023 года ее услугам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уже 40 человек.

Как устроена корейск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нят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андарт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 подразумевает большую свободу учащихся. Ес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студент обязан посещать занятия и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 вузе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субботу, то в Америке человек сам является составителем своей программы. Он может выбирать предметы, учебные дн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ладимир Тен:

— Когда я учи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то построил график так, чтобы посещать университет не пять, а три дня в неделю.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меня оставалось 4 дня на работу, отдых, собственные проекты.

По большинству направлений обучение в бакалавриате длится 4 года.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ют профи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роде науки, архитектуры, медицины и т. п.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инается не в сентябре, как мы привыкли, а в марте. Однако некотор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упать в осенний семестр. Длятся семестры 4 месяца, между ними — по 2 месяца отдыха.

Важно: подача документов начинается за полгода до начала семестра. Если не успели — готовитесь к поступлению на следующий семестр.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Стоимость контракта сильно зависит от вуза и выбр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Цена за семестр, как правило, варьируется от \$1.500 до \$5.000 долларов США. То есть в среднем это \$3.000 долларов.

Выше среднего стоят спортивная (факультет физ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факультет спортивной науки) и творческая (факультет театра и кино, факультет музыки) специализации. В среднем ценовом диапазоне находятся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ест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медицина. Ниже средней планки — гуманитарное/соци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бизнес и менеджмент, факульте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ажно: Если у вас не хватает средств на обучение по выбр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то не расстраивайтесь — талантливым студентам вузы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кидки и стипендии.

Порядок поступления в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Требов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 документам, форме эссе/мотивационного письма разнятся, поэтому для каждого вуза придется готовить свой пакет. В целом поступление состоит из следующих этапов:

1. Выбор университета/факульте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в не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узов. По мнению Владимира Тена опт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 три. Так абитуриент не теряет фокус и идет в те вузы, которые выбрал и в которых хочет учиться. Во-вторых, каждая заявка стоит \$70–100. В-третьих, для кажд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свой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Их придется визуировать, заверять у нотариуса и т. п., что также оборачив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расходами.

1. Написание сочинения/мотивационного



письма.

2. Сбор документов

3. Подача (отправка) документов в университеты. Начинается за полгода до старта занятий. Даты приема отличаются от вуза к вузу.

4. Собеседование — присутствует далеко не во все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проходят онлайн.

5. Получ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 как правило, выдается сертифика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оступление.

6. Оплата семестра

7.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Если вы кореец, то желательно сделать визу этнического корейца, так как студенческие визы имеют ряд ограничений.

8. Прилет в Корею

9. Начало обучения.

Как выбрать университет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много, поэтому сделать выбор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Но если вы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ведете отбор по этим 6 пунктам, то круг сузится до примерно 5 вариантов.

1. Локация.

Спросите себя, где вы хотите жить. Многие абитуриенты стремятся в Сеул, но есть ребята, которым не нравятся мегаполисы, сосредоточение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народа, городская суета. Они выбирают другие города: Пусан, Кённджу, Тэгу. Возможно, в каком-то городе у вас живут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вы хотите быть ближе к ним.

1. Наличие нуж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Как только вы определились со специализацией, то берете список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ыбранного города и смотрите, где готовя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вашему направлению.

1. Стоимость.

Это краеугольный камень поступления. Заложите бюджет, за который вы не будете выходить при выборе университета. Если вы можете платить \$2.000 за семестр, то не рассматривайте вузы с более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ью обучения.

1. Стипендия.

Этот пункт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ажным. Однако если вы начнете выбирать вуз с этого критерия, то не получится сузить круг вариантов.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типендии, позволяющие учиться бесплатно или со скидкой.

Бывает, что абитуриенты выбирают дорого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ают стипендию, учатся бесплатно, но в каком-то семестре оценки ухудшаются, и стипендия слетает. Представьте, что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латить \$2.000 за семестр, но вы выбрали университет со стоимостью \$5.000. В случае потери стипендии придется трудно — нужно будет брать кредит, искать работу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оплатой.

1. Рейтинг

Иностранцы часто допускают ошибку, выбирая вуз по рейтингу. Что мы делаем: смотрим топ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Южной Кореи, возглавляемый Сеуль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Ёнсе, Университетом Корё — и фокусируемся на них.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Екатерина Цой

Источник: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11 (87)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офсоюзы начали всеобщую забастовку

Корейская конфедерация профсоюзов, крупнейшее в стране объединение трудящихся, объявила 3 июля всеобщую забастовку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став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 Ёля. Она продлится до 15 июля.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профсоюзы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ят различные акции, но на этот раз ожидается более жёсткий протест, связанный с ухудшением отношений профсоюзов с властями на ф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в сфере труда. О начале забастовки объяви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еред зда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конфедерации профсоюзов Ян Гён Су.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ужесточилось давление на трудовые круги, ухудшились услови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нависла угроза над демократией, ослабла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Профсоюзы требуют повыс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плату и усилить поли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трудящихся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едстоящих в 2024 году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забастовк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из 1 млн 200 тыс. членов конфедерации. Колле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не вызовут особых неудобств дл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участие каждой отрасли в забастовке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о одним или двумя дням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офсоюз компании Hyundai Motor проведёт забастовку 12 июля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 профсоюзом металлургов. Профсоюз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объявил бессрочную всеобщую забастовку, которая начнётся 13 июля.

Создана Все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10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состоялась учредитель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 не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ов,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славяновед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Евразии, а также школь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озникла из-за низкой до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выборе втор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в старших школах, где чрезмерное предпочтение отдаётся японскому и китайскому языкам. Помимо этого, в страну активно въезжают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з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тран. В этой связи растут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й в школах, вызванных взаимным непониманием культур между учащимися из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тран и местными школьниками. Сопредседателями ассоциации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таршей школы Соён Пак Со Юн 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Ким Чжин Гю. Ассоциация планирует работать над разработкой систем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и юридического фундамента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хода в обучении детей в школах с высокой долей учеников из числ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рок действия К-ETA продлевается с двух до трёх лет

С третьего июля срок действия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в РК К-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граждане 112-ти стран с безвизовым режимом, будет продлён с двух до трёх лет.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го получения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иностранцы младше 17-ти и старше 65-ти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К, данная мера соз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добства иностранным туристам при посещении РК.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позволяет пересекать границу неограниченное число раз в течение срока его действия. Система была внедрена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айт был доступен на корей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Недавно были добавлены японский, та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испан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и малазийский языки.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группы, на которые может быть подана общая заявка, увеличено с 30-ти до 50-ти человек.

В Сеуле расширя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бусов

5 июля мэрия Сеула сообщила о начале курсирова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маршрутных автобусов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у 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 районе Ёйдо. 13-местные микроавтобусы Solita производства Hyundai Motor будут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 маршруту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три километра. Ранее такие автобусы начали курсировать в сеульских районах Санам, Каннам, Чхонгчхон и у бывше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Чхонвадэ. В район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беспилотные автобусы делают шесть остановок и передвигаются со скоростью от 30 до 50 км/час.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новинки можно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TAP, где нужно ввести места отправления и назначения. Впоследствии зону работы таких автобусов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всего района Ёйдо. В октябре впервые в мире в Сеуле будет запущен ночной беспилотный автобус.

(RKI)

Юн Сок Ёль поменял главных кураторов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В четверг 29 июня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масштабных перестановках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изведены замены двух министров и 12 чиновников уровня вице-министров. Эксперт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ч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изошла замена трех главных кураторов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Судя по личны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и взглядам тех, кто теперь на Юге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строена на жестк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Страны чучхе и не считает возможным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 грядущих перестановках СМИ сообщили заранее, указав также, что самой главной заменой станет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гла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ведомства, которо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отвечает за связи и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Как стало понятно из содержания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ое сделал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Дэ Ги, журналисты не ошиблись со своими прогнозами. Главо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был назначен 63-летний профессор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униль Ким Ён Хо, а новым главой Комисс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правам и борьбе с коррупцией стал адвокат Ким Хон Иль, который ранее также был главой прокуратуры города Пусан. Учитывая, что данная Комиссия эквивалентна министерству, то было сообщено о замене двух министров.

Кроме того, произошли замены сразу 12 чиновников уровня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Так, новые "замы" появились в следующих министерствах –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2-й зам), объединения,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2-й зам),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1-й зам),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2-й за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зем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и транспорта (1-й и 2-й замы),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малых, средних и венчур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есколько необычным стало назначение на пост 2-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40-летней Чан Ми Ран, которая до сих была известна как чемпион Олимпиады-2008 по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Чан пользовалась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стране,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портивной карьеры стала преподавать в спортив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Ёнине, а теперь ей доверил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пос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олитологи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нынешние перестановки хотя и носят в целом "дежурный" характер, но в одной сфере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серьезных реформах. Речь идет о политике Сеул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Помимо собственно уже упомянутого гла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в ведомство назначен и новый вице-министр – Мун Сын Хён,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кадровым дипломатом и до этого был послом РК в Таиланде, а ранее возглавлял американский отдел МИ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также сменился и куратор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 секре-

тарь по делам объединения. Им стал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син Ким Су Гён. В итог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изошли замены сразу трех главных фигур, которые отвечают за выработку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Если же посмотреть н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этих чиновников, то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м подходе при их подборе и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можно строить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 том,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линия Юг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Так, новый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Ким Ён Хо известен как специалист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ястребов" среди экспертов по КНДР. Когда-то он придерживался левых взглядов и даже успел отсидеть 10 месяцев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 после учебы в США резко сменил ориентацию, встав в ряды консерваторов,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сторонника линии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Ким активно вел YouTube-канал, который пользуется до сих пор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консерватор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 в разработке лин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 бывший посол РК в Таиланде Мун Сын Хён – известен как человек с хорошими связями в США, также был секретарем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Мун критически относился к попытка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езиден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алад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и заключить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Кстати,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замминистра объединения назначен кадровый дипломат.

Новый секретарь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тоже показателен. Профессор Ким Су Гён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апологето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суждения проблематик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и тоже склонен к жесткой лин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и так уже строило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с позиций жесткости, давления, неуступчивости, требуя от КНДР сначала сделать шаги по отказу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уж потом начать говорить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Личные взгляды новых кураторов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что ставка на жесткость и давление будет усилена, а Сеул в целом не настроен искать какие-либо компромиссы или точки сближ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Все это будет делаться в активном контакте и пр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ША, для чего замминистром объединения и назначен выходец из МИДа, активно общавшийся на дипломатии с американцами. Учитывая, что и в Пхеньян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также доминируют "ястребы", то можно 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лишь грядущее ухудшение и обостр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гда Юг и Север будут пытаться отвечать на силу силой друг другу. Региону же это сулит новый виток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плоть до возмож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южан и северя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оисковые работы на месте падения ракеты КНДР заверш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одня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Маллигён-1» со дна Жёлтого моря, завершив поисковые работ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5 июня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напомнив, ранее были подняты основные части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Чхоллима-1».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о анализируют найденные фрагмент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спутник не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функции в интересах военных. Ракета-носитель «Чхоллима-1» с военным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м спутником «Маллигён-1», запущенная 31 мая с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пала в Жёлтое море из-за проблемы с двигателем. В тот же день примерно в 200 километрах к западу от острова Очхондо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плавучи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фрагментами ракеты. Позднее со дна моря была поднята вторая ступень ракеты, а затем и спутник. Поднятые фрагменты не будут переда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если она этого потребует. Резолюция 1718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запрещает передавать Северу технологии и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Фрагменты ракеты подпадают под действие данной резолюции. Военные сообщили, что отслеживали ракету с момента её запуска, а после падения определили зону поисков, к которым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корабли ВМС, самолёты и другие средства.

KBS World

Минюст РК совершенствует систему выдачи учебных виз

С 3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ввело в действие улучшенную систему выдачи виз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с целью привлечения в страну зарубежных кадров. В частности, снижается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которыми должен обладать студент при получении визы. Если раньше от студента требовалось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о наличии у него 20 тыс. долларов, то теперь – 20 млн вон. Для поступающих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вузы минимальная сумма будет ещё ниже. Обладателям рабочих виз E-9 и E-10 разреше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учаться,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валификацию. Если способ подтверждения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ранее ограничивался системой TOPIK, то теперь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ся дипломы об оконч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и языковых курс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Допусти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для студентов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 20 до 25 часов в неделю. В случае высоки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успехов студента он получи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до 30 часов в неделю.

KBS World

Стартовал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Разрешение на нач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было получено 26 июня, что позволило подрядчику приступить к подготовке площадки. Сейчас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готовятся к установке временно-ограждения и демонтажу всех оставшихся покрытий. К активной фазе работ должны приступить в августе. В новом кампус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мым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порядка 1500 студентов.

Ход работ по подготовке стройплощадки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доложи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Николай Артемов,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начнут с демонтажа существующего ограждения и устройства свай для нового. Сначала будут натянуты баннеры, затем их сменяют на панели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будущег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Новое ограждение по периметру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Музейной, Антона Буюклы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проспекта станет украшением города.

— Мы начинаем воплощать в жизнь один из самых амбициозных и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ейчас большинство наших талантливых выпускников уезжают получа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за пределы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и зачастую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домой. Наш регион и наша молодежь достойны лучшего вуза. И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красивом и комфортном здании, но и в сильнейшем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м составе и хорошей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е. Все это тож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ш островной вуз должен ста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 подстегну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истему всего региона и дать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я наук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е кор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могут вместить порядка 1500 студентов. Будет привлечено более 250 человек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лаборантов, техников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Помимо лабораторий и учебных классов,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множество пространств не только для обучения, но и для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 технопарк откроет двери для стартапов, а оранжерея станет местом для публич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музей-библиотека будут интересны посетителям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встречи и дискуссии, а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ля заняти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кафе же студент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просто жители города с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и обсудить свои идеи.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 это важный этап в развити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Наша мисс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Мы будем готови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и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ластер, который мы создадим,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инноваций, где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над проектами, которые принесут пользу обществу,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 площадка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а. В городке будут созданы современные общежития, оснаще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а такж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обучения, отдыха и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о и жить в условиях,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личностному развитию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ести передовой кампус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лжны в 2026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улучш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ллиативным больным

В паллиативный центр,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Синегорске, поступила новая медицинская мебель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создана еще одна мобильная бригада для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с прогрессирующими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е все пациенты паллиативного центра могут рассказать о бытовых изменениях в палатах — это не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тяжесть их состояния. Заболевания, с которыми борются постояльцы этого отделения, чаще всего неизлечимые, требующие постоянного ухода и заботы. В этом году здесь обновили большую часть кроватей, все пациенты обеспечены новой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мебелью.

— В нашем отделении 30 коек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 это половина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по области.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ремени такие пациенты проводят в кровати, поэтому важно, чтобы мебель была всегда исправной и регулярно заменялась на новую,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Синегорской больницы Татьяна Золотова.

Кровати для паллиативных пациентов имеют несколько подвижных секций. С их помощью 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удобное для человека положение. Они также оснащ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ортопедическими матрасами,

которые предупреждают появление пролежней и не вызывают болей в спине.

Обнов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мебели произошло за счёт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мимо кроватей, в палатах также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шкафы, штативы и инфузионные стойки. В прошлые год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больнице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поэтапный ремонт кровли на всех корпусах. Это избавило помещения от протекания и сыр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 одном из корпусов проведен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холла, а дети из местной изостудии расписали стену, это добавило медицинским помещениям уюта.

— Мен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еревели в это отделение из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Здесь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жизни удобства. Больница расположена в очень тихом месте, кругом лес, — подел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Светлана Николаевна.

На базе Синегорской участковой больницы работает не только стационар, но и сформирована мобильная бригада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Специалисты выезжают в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для патронажа больных.

—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три бригады: от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 для дет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т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 для работы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и наша — на всю область.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начнёт работать ещё одна — в Долинске. Мы увеличиваем количество выезд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больных,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ведующий паллиативным отделением Синегорской больницы Михаил Сушко.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шесть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для оказания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е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оказания паллиатив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оглик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получил проект Ноглик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У нивха есть родной язык». В его рамках будет издан нивх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в книжном варианте и аудиоверсии для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Гран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оставила 1,7 млн рублей.

На сегодня уже записано 4500 нивхских слов, и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Тираж бумажной версии словаря составит 1000 экземпляров. Издания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о все библиоте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QR-код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аудиоверсии будет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Ногликской райо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ыпустить словарь планируется в нояб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тыся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ят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Ежегодно сокращается число людей, считающих язык своей национальностью родным. Утрата языка неизбежно ведет к потер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 к исчезновению этноса. Осложняет ситуацию то, что сегодня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ют учебники и метод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на нивхском языке, мало изданий фольклора и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д нивхско-русским словарем трудятся пять человек: писатель с мировым именем, филолог и этнограф, Владимир Санги, директор Ногликской ЦБС Ольга Рожнова, звукорежиссер Роман Филатов, программист Николай Красильников, кур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Инга Красильникова.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сегодня крайне важно сохранить не только книжную, но и звуковую форму национальных языков.

— Нивхский язык содержит 46 букв, и произнести многие звуки сложно, важно не упустить время и сохранить оригинальное звучание языка для нивхского народа, — отметила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Инга Красильникова. —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оекта повышается во много раз, если вспомнить возраст носителя языка — Владимиру Санги 88 лет. Если сегодня не записать на бумагу и на аудио более 4 000 нивхских слов, которые знает Владимир Михайлович, завтра может быть уже поздно. Огромный пласт нивхской культуры будет безвозвратно утерян.

Всего на второй основной конкурс 2023 года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была подана 10 291 заявка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ошли экспертизу и получили итоговые баллы 9 899 проектов. Сумма запрошенных грантов составила 38,7 млрд рублей.

Отметим, что Президентский фонд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был создан в мае 2021 года п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За время своей работы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фонд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свыше 120 тысяч проектных команд.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ех отборов, поддержаны 6 016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и твор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й.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купольные дома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готовы к приему туристов

Семь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купольных домов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готовы принять первых туристов. Комплекс возведен в селе Рейдово на берегу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егодня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ие эко-туризма, известное как глэмпинг. Эт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отдых на лоне дикой природы с набором услуг,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отели: двуспальная кровать, мебель, кухон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олностью оборудованный санузел. Все строения, обычно в виде легких домиков, шатров или полусфер, органично вписываются в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не нанося ей вреда.

—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 для тур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из-за рубежа. Но недостаток гостиничных номеров мешает наращ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В 2022 году наш регион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выделенных средств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евяти проектов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екапитальных средств размещения гост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комплекса в селе Рейдово. Формат глэмпинга позволяет быстр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средств размещения. Строения из легких материалов возводятся за очень короткий срок и обеспечивают комфортный современный отдых,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Купольные дома в селе Рейдово,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двухместное размещение, установлены так, чтобы из окон открывался красивый вид либо на море, либо на вулкан Богдан Хмельницкий. Каждый сферический дом оборудован собственной ванной комнатой, туале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ы теплые полы, кондиционеры и конвекторы, поэтому комплекс 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туристов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десь возведут еще три купола, построят баню с горячим чаном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 Очень люблю нашу страну, природу и людей. Мне довелось побывать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осенью 2021 года. Я влюбилась в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и захотела сделать е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для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Со временем удалось най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реализовать идею, в которую почти никто не верил. И вот наши купольные дома у моря ждут первых гостей,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Иванова. Он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инициаторов проекта.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предполагает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утешествий по России к 2030 году до 140 миллионов поездок в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абинеты психолог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ступил в силу новый порядок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психиатр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кументом в поликлинических отделениях част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региона открылись кабинеты мед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А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й психиатр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яви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труктур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Стрессы, расстройства — состояния, возникающие у людей достаточно часто. Не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в т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пойдет к врачу. Специалисты считают, что, если такие ситуации регулярно выбивают почву из-под ног,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не требует постановки на учет, а поддерживающий курс поможет вернуть спокойствие 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более серьез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здоровья. Открытие нов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анонс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Михаил Мурашко.

— В России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новый порядок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о психиатрии. В порядке есть ряд новаций,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в том числе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беспечения кадрами. Появляется новая сущность — это медицинские психологи в поликлиниче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 рассказал Михаил Мурашко.

Новое отделение мед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в областной психиатр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В его структур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абинеты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где медицинский психолог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При наличии показаний пациенты могут пройти курс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 групповой психотерапии.

— Отделение уже создано, его возглавит опы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 врач-психиатр детский, врач-психотерапевт Владислав Кузнецов. —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боре в группы будет размещена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на сайте и на страницах учреждения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Так же в структуре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ой отдел, в который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пациенты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Запись на консультацию в отдел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ой помощ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через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на прием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психиатр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Дарья Трифонова.

В районах для оказания мед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открыты кабинеты психологов. Специалисты начали прием в поликлиниках Холмской, Углегорско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й, Тымовской, Томаринской, Смирныховской, Охинской и Ногликской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акие кабинеты откроются в Макарове, Аниве и на Курил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각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할린 동포 위문 공연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양산시지회(지회장 정호진)가 모국에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열었다.

지난 24일 상북면 대석리 휴먼시아 아파트 대강당에서 사할린 동포 위안 봉사연 "찾아가는 힐링 연예예술 봉사공연"을 펼친 정호진 지회장은 봉사연 인사말을 통해 모국으로 영주귀국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할린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회원들이 사할린 동포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양산시지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양산통도사 자비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문공연을 펼쳤다.

(양산신문)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 사할린 어르신 70가구에 밀반찬 나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안산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 협력체인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은 6월 30일 고향마을 아파트 내 어르신 가구 중 9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 등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출입이 어려운 70가구에 밀반찬 3가지씩을 만들어 전달하였다.



이날 활동에는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 소속 기업에서 2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한 정성이 가득한 밀반찬을 만들어 고향마을 아파트 노인회에 전달하였다.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 대한광통신주식회사, 등 7개 기업과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하여 ▲고려인과 함께하는 일일나들이 ▲소외계층 반찬 나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집고치기 및 가스점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주) 이만희 본부장은 "직접 반찬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꾸준히 활동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활동장소를 찾아 자원봉사자분들을 격려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중 이사장은 "봉사자분들의 수고로 집 밖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자원봉사자분들이 즐겁고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투데이뉴스)

부산 기장군,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건강(Dream)드림' 열어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6월 21일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관신도시휴먼시아1단지를 방문하여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건강(Dream)드림'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장군보건소(구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기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유관기관인 해운대백병원, 기장병원, 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일광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104명이 참여했다.

65세 이상 노인 및 사할린 영주 귀국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결핵, 혈액검사, 구강검진, 치매예방교육, 우울증 스크리닝,

만성질환 상담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특히 기장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는 구강검진 및 상담, 치아 강화와 세균증식 억제에 위한 불소바니쉬 도포, 틀니 초음파세척,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우울증 스크리닝, 치매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기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하여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장군지역사회협의체와 협력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우리는 제주인] 경기안산시흥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주인 긍지 · 자부심으로 뭉쳐 30여 년간 성장"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회원 수만 5000여 명
제주 출신 사할린 동포와 제주의 연결고리 역할 특목

경기안산시흥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주출신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30여 년간 회원 간 유대와 애乡심을 나누고 있다.

1988년 10월 40~50여 명의 소규모 모임에서 출발해 1996년 현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제주도민협의회'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친목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회원 수는 5000여 명으로, 도민회의 근간이 되는 임원진만 59명에 이른다.

2016년 1월 취임한 김현철회장과 함께 김두훈 전 회장(동영화성대표), 김찬배 직전 회장(현대산업 전 대표), 신병근 감사(관세사), 김한형(인터플렉스 전 대표)·한태일(원로배우)·신수보(전직 경찰)·고승은(전 조천읍민회장)·이광호(전 방첩대) 고문, 신원국 자문위원장 등 13명의 자문위원단, 박정권(수석부회장)·김태성(안산일백회장·하나정형외과 원장)·고충환(뉴페이스 치과원장)·김동훈(엠에쓰씨 대표) 등 13명의 부회장단, 강준호 사무총장, 홍수임 재무국장, 김창범 청년 국장 등 21명의 국장, 유종훈 산악회장이 모임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경기안산시흥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은 제주도 원적이나 본적을 두고 있으며 안산·시흥 및 경기 일원 지역의 연고자들로 구성됐다.

모임은 신년회·송년회 등 두 번의 총회와 산악회 활동, 도민가족 한마음 잔치, 청년국 체육대회, 안산시 팔도 향우회 총연합회 행사 등에서 회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과 함께 출향한 김현철 회장은 29일 "안산시에는 8도 향우회(호남, 영남, 충청, 충북, 강원도, 이북5도민회)가 결성돼 있는데, 우리 도민회가 타 향우회에 비해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제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가장 결집이 잘 된다"고 모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 회원들은 반월공단, 시화공단 지역 경기의 부침과 함께 하며 30여 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성장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ROTC 장교 출신인 그는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감사도 맡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비대면의 시간을 보낸 도민회는 최근 산악회 활동이 본격 가동된 데



이어 올 하반기 도민 가족 한마음 잔치(문화 탐방)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에 사할린 동포 고향 방문 행사 참가를 기점으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 지원 사업은 도민회 3대 회장을 역임한 김두훈 전임 회장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구에는 1992년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 사업에 따라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 중으로, 올해 6월 기준 제주출신은 1~2세대를 통틀어 총 45명이다. 도민회는 제주출신 사할린 동포와 고향 제주의 연결고리 역할을 특목히 해왔다. 서울제주도민회와 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와 함께 제주출신 사할린 동포들이 세계제주인대회에 참가하며 친척 방문, 조상묘 참배, 관광명소 탐방 등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 출신 사할린 동포가 정부의 4·3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안산시흥제주도민회 관계자가 행정적인 일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기안산시흥 지역 제주출신의 구심점이 되어 온 도민회는 앞으로도 회원 유대 강화에 더 힘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비활동 회원, 소외된 회원을 발굴해 참여를 독려하고, 도민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젊은 층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국의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운동 전개로 일체감도 고취하고, 매해 회원들에게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활동 우수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도의회 의장 표창, 도민회장 공로패를 수여해 온 것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일상에 지친 회원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모임 기회를 더 확대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라일보]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Прошедшее модернизацию судно вышло 2 июля 2023 года из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завершит рейс в порту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За время экспедиции турист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йти вдоль всего Куриль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высадиться на мысе Край Света в аква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заказника «Малые Курилы».

За десять дней судно пройдет 1,2 тысячи морских миль. Смена пассажир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а 12 июля в порту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ий. После судно выйдет в обратный рейс до Сахалина.

러시아, 출장 근무 두 배로 증가

러시아 최대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hh.ru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교대 근무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과 6월 사이에 교대 근무자 채용 공고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91%)로 증가했다.

2023년 5~6월 통근자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지역(100% 이상)은 러시아 17개 지역에서 드러났다. 그중 상위 5개 지역은 칼리닌그라드 지역(+196%), 모스크바 지역(+156%), 아르한겔스크 지역(+150%), 모스크바(+129%) 및 무르만스카야 지역(+129%)로 드러났다. 동시에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출장 근무하는' 지역은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러시아 내 출장 근무 일자리 7%), 이르쿠츠크 지역(5.2%),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및 모스크바(각 5.1%), 스페르 들롭스크 및 첼랴빈스크 지역(각 +3.8%) 순이다.

극동 지역 전체에서 지난 두 달간 출장 근무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76% 증가했으며, 바이칼 횡단 지역(+113%), 아무르 지역(+109%), 사할린 지역(+100%)에서 수요가 가장 많이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극동 연방 관구 지역에 게시된 모든 공식 대비 출장 근무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바롭스크 지역으로, 출장 근무자에 대한 제안이 더 많이 게시되어 있다

(2.8천 개 이상). 이에 비해 바이칼 횡단 지역에서는 2,200여 개, 아무르 지역에서는 1,900여 개, 사할린 지역에서는 470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다.

"숫자로 보는 사람들" 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출장 근무자에 대한 높은 수요는 "급여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전체에서 출장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연봉의 범위는 102,069~160,920 루블리로 10만 루블리를 넘어섰다. 극동 지역에서는 추코트카 자치구, 마가단 지역, 사하 공화국(아쿠티아)의 출장 근무자가 가장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다. 사할린 지역의 출장 근무자에게는 평균 110,638루블리에서 172,414루블리의 급여가 지급된다.

В России количество вахтовых вакансий выросло в два раза

Эксперты hh.ru, крупнейшей платформы онлайн-рекрутинга в России, зафиксиров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спроса на вахтов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тране: за май-июнь количество вакансий для них увеличилось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 91%) относительно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мый заметный рост спроса на вахтовиков (от 100% и более) в мае-июне 2023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изошёл в 17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В первой пятёрке среди них: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196%),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156%), Архангельская область (+150%), Москва (+129%) и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129%). При этом «самыми вахтовыми» регионами в России остаются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7% вахтовых вакансий в России),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5,2%),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и Москва (по 5,1%), а также Свердловская и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и (по +3,8%).

В целом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объем вахтовых вакансий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месяца вырос на 7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а наибольший всплеск спроса произошел в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е (+113%),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109%)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00%). Однако, лидером по доле вахтовых ваканси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сех размещенных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вляется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здесь размещено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ложений

для вахтовиков (более 2,8 тысяч).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е размещено более 2,2 тысяч та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 1,9 тысяч,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470.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вахтовиков в России подогревает «зарплатную гонку», и сейчас диапазон предлагаемых зарплат для них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перешагнул планку в 100 тысяч, и составляет 102 069 – 160 920 рублей, по данным сервиса «Люди в цифра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самые высокие заработк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вахтовые работники в Чукотском АО,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е Саха (Якутия). Вахтовик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реднем предлагают зарплаты в диапазоне 110 638 - 172 414 рублей.

사할린에서 첫 지역 등산 대회 열려

"사할린 산길" 등산 토너먼트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13km 또는 20km의 거리를 달렸다.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 주 스포츠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이 대회에는 96명이 참가했다. 대회 코스는 주도시 동쪽의 그림 같은 숲과 언덕에서 진행되었다. 출발과 결승선은 "트리움프" 크로스컨트리 스키 및 바이애슬론 콤플렉스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2006-2008년생 남학생과 여학생,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региональный турнир по альпинизму

Турнир по альпинизму «Сахалинские тропы»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и преодолели дистанции 13 или 20 км.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язания собрали 96 участников. Спортивные маршруты проложили по живописным лесам и сопкам к востоку от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Старт и финиш располага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иумф».

Награды соревнований оспаривали в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ях: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2006-2008,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старше 18 лет.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